



한형석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어느덧 병술년(丙戌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업계에 있어 최악의 악재인 AI 극복을 위해 혼신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회원사 그리고 육계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03년 처음 AI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소비급감에 이은 닭고기 가격폭락의 여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를 생각하면 그나마 형편은 나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후속여파는 오히려 더 클 듯 합니다.

2003년 처음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일부에 한정됐었지만, 이번 사태는 육계사육의 주산단지 중 하나인 전북 익산지역이 초토화되다시피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계육업계는 2004년 초 AI 발생 종식 선언 후에도 매년 AI의 망령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 다니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고자 가금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AI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언론매체를 방문하여 외국의 AI 발생 보도자제 요청, 혐오장면 방영중단 등은 물론 용어변경(‘조류인플루엔자’를 ‘AI’로)에 이르기까지 AI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수시로 농가교육 등을 통해 농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누누이 당부해왔으나 결국 AI의 철퇴를 피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육계가격은 물론이고 회원사들의 매출마저 절반으로 툭 꺾여버렸고 연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 벌써 자금난으로 이어



우리 모두 후회 없는 한해를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웃는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희망합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닭고기 업계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업계는 물론이고 정책당국, 관련업계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했던 AI 배상책임보험이 지난 11월로 만료돼 재계약을 끝마쳤으며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으로 인해 급감한 닭고기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AI 안전성 라디오 광고 시행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금수급안정위원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종류로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발생지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조기에 AI 발생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2003년도와는 달리 각계각층에서 AI 발생과 동시에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조금씩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닭고기 산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한해를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웃는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